

# 1 | 0 | 고속무선호출(PAGER) 표준화

## ■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무선호출기

무선호출기(PAGER)는 휴대가 편리하게 만들어진 소형 수신기를 통해 일정 신호음을 휴대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로, 국내에서는 속칭 '삐삐'라고 일컬어진 단말기를 말한다. 무선호출기에는 소리를 내어 호출하는 톤(tone)방식, 숫자를 표시하는 숫자 표시 방식, 글자를 표시하는 메시지 표시 방식이 있다.

무선호출은 1950년 알그로스가 무선호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한적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후 1958년에 처음으로 상용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974년 Tone 방식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POCISAG(Post Office Code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방식이 무선호출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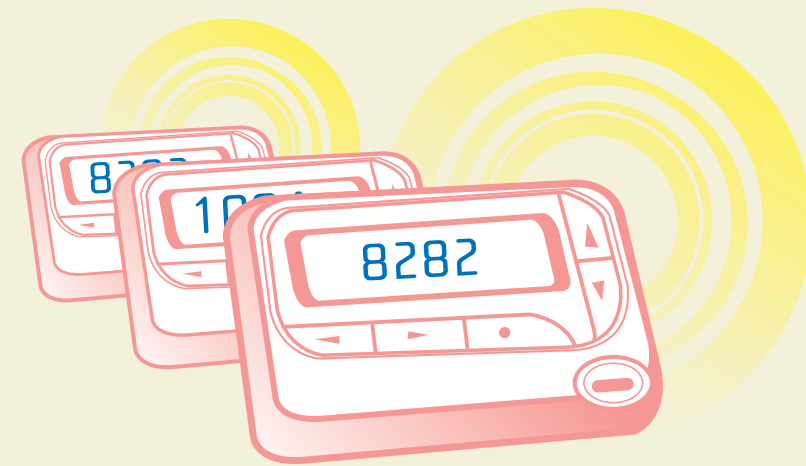
무선호출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1982년 12월 15일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비싸 정부 고위 관리나 수사관, 언론사 기자들처럼 이동이 잦고 업무상 긴급 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단말기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무선호출기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

게 되었다.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던 무선호출기는 1992년 사용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14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곧바로 사업자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듬해인 1993년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13개로 늘어나며 공격적인 가입자 확보 경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불과 3년 만인 199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가 싶더니, 1997년에는 1,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히 폭발적인 상승세와 함께 무선호출기 황금시대를 열어나갔다. 이 같은 상승세는 우리보다 빨리 상용화를 시작한 선진국의 보급추세를 능가하는 것으로 거의 폭주에 가까운 것이었다.

물론 2006년도에 이미 4,000만 명을 넘어선 이동전화 보급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1,500만 명의 사용자가 대단치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은 막 출발하는 단계였으며, 무선호출기의 폭발적인 호응은 이동통신에 대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셈이다.

한편 초기에 숫자를 전달하는 방식의 무선호출기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숫자를 이용한 상징적 언어들을 예로 들면, '8282'는 '빨리빨리', '8255'는 '빨리 와요', '1004'는



'천사' 등 숫자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수많은 상징 언어들이 사용되었다.

## ■ 고속 페이지의 등장

무선호출기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가입자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 저하를 불러왔다. 고객이 발송한 메시지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나마 오류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마저 많아졌다. 당시 무선호출기 표준 방식이었던 POCISAG는 최대 전송속도가 2,400bps에 불과해 신속·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생명이던 무선호출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업계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속 무선호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 무선호출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당시 유력한 고속 무선호출 방식으로는 모토로라에서 개발한 FLEX와 필립스사의 APOC, 유럽의 ETSI에서 표준으로 정한 ERMES 방식이 있었다. 세 가지 방식에 대한 검증 결과 기술적으로는 FLEX나 APOC 방식이 ERMES 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성능의 우수성 못지않게 향후 양방향 무선호출로의 진화 가능성 및 전망, 상세한 자료를 요하는 기술지원 상황을, 특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했다. 그 결과 향후 국내 무선호출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유럽의 ERMES 방식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 ■ 이동통신에 밀려 사라진 고속무선호출기

고속무선호출의 특징은 6,400bps 고속 전송 방식으로 채널당 가입자 증가는 물론 안정적인 문자서비스와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속무선호출 서비스는 국가표준 제정과 함께 시장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1998년에 등장한 PCS 서비스는 고속무선호출 서비스를 순식간에 시장에서 몰아내며 주요 통신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한때 2,000만 명에 육박하던 무선호출기 사용자는 대부분 PCS(016, 018, 019)와 셀룰러폰(011, 017)으로 이동하였고, 2000년에는 무선호출 서비스의 양대 축 중 하나였던 015가 서비스를 중지했다. 사업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012 서비스를 제공하던 SK텔레콤도 무선호출 서비스를 인텍텔레콤으로 인계하고 이동통신 사업에만 주력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고속무선호출 서비스는 2008년 현재까지 012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추억 속의 삐삐로만 남아 있게 되었다.